

**The Gospel of Mark**

Sermon 74 – Sermon notes

Title: “Jesus buried”

Scripture: Mark 15:42-47

Date preached: March 17th 2024

**Scripture: Mark 15:42-47**

**42** Now when evening had come, because it was the Preparation Day,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43** Joseph of Arimathea, a prominent council member, who was himself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coming and taking courage, went in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44** Pilate marveled that He was already dead; an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if He had been dead for some time. **45** So when he found out from the centurion, he granted the body to Joseph. **46** Then he bought fine linen, took Him down, and wrapped Him in the linen. And he laid Him in a tomb which had been hewn out of the rock, and rolled a stone against the door of the tomb. **47** And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ph observed where He was laid.

42 그 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44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46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 준비한 고운 모시 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 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았다.

47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 둔 곳을 지켜 보고 있었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which concerns Jesus' burial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Sunday.

We spoke in some detail about Jesus' death upon the cross. In particular, we looked at the five dramatic events that accompanied our saviour's death. Mark tells us that the first dramatic event was a darkness that had descended upon the land. This darkness covered the earth from 12 noon until 3pm. This as I told you last time was no ordinary solar eclipse. Jesus' crucifixion took place during the celebration of Passover. A time when the moon is full, not the time when solar eclipses are naturally possible. So what happened here was a supernatural event.

God stepped in and temporarily interrupted the normal running of His creation. This is something that as its creator and sustainer is His divine prerogative. It is however something that God rarely chooses to do. Why then did He choose to do so here?

Many scholars connect this darkness to the words of the prophet Amos. He had prophesied that on God's day of judgement God will make the sun go down at noon (Amos 8:9). We can also draw a parallel with what happened around the time of the first passover in Egypt. The ninth plague God sent upon the Egyptians was three days of darkness, this event was followed by the tenth plague the death of the firstborn. A death that was passed over in the case of the Israelites who killed a lamb and spread its blood around the door frame. Here at this momentous Passover we see a similar pattern emerge. A period of darkness (3 hours), followed by a death of the firstborn and the shedding of “the lambs” blood which results in a much more significant passover.

It's also interesting to think about the darkness covering the land as a re-creation event. Let me take you back to the opening of scripture. In the beginning there was only darkness or chaos. As we read in Genesis 1:2.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This was because before the creation event there was an absence of design or order (Gen 1). As God spoke He created order. He introduced light and design and in effect dispelled chaos. Here Jesus on the cross speaks again into the darkness and through His acts and words brings order. He once and for all time defeats the power of darkness and chaos.

As the moment of His death draws near Jesus cried out. These were the second and third dramatic events. Jesus' first word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reflect His unbearable anguish at His estrangement from God. At this moment bearing our wretched sins He was temporarily separated from fellowship with the Father. It was this estrangement and not the intense physical pain that made Jesus cry out.

Those standing nearby mishear His cry. They think He is calling out to Elijah. The prophet Elijah who was taken directly up to heaven without dying was regarded as a messianic type figure. The belief was that he would return to rescue the righteous when needed (Malachi 4:5). So the people think Jesus is calling out to Elijah in His hour of need.

It is also at this point that Jesus is offered some sour wine on a stick. I spoke last week about how His severe physical condition may have left Him with extreme thirst. Following this, His mission complete the Lord Jesus dies. It is 3pm.

At the moment of His death we see the fourth dramatic event take place. The large curtain or veil in the temple is torn from top to bottom. This immense curtain divided the Holy of Holies from the rest of the temple. The Holy of Holies represented God's divine presence. Only the High Priest was permitted to enter this most sacred of areas and on just one day of the year. The symbolic meaning is not difficult to discern. The old system or way of approaching God is now becoming obsolete. Now through Christ's sacrifice believers are given full, direct and permanent access into the presence of God.

The fifth and final dramatic event was the declaration made by the Roman centurion. He was almost certainly the leader of the execution squad. It was his job to supervise the execution of the condemned men including Jesus. He was probably a seasoned veteran. A man who had seen and dispensed death on many occasions. As he watches Jesus die he exclaims,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We don't know exactly what he meant by this. We examined some of the possibilities last time. Whatever lay behind his words he spoke the truth.

We concluded last time by mentioning the women who looked on and watched in horror and great sadness. Mark tells us that among this group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ph and Salome. These women had joined Jesus in Galilee and had followed Him as he travelled around. They had offered Him their support and help as He lived as an itinerant preacher and teacher. We should not overlook, or ever minimise the importance of their role. Jesus was a radical rabbi. In a culture that shunned and looked down upon women Jesus did the opposite. He welcomed, taught, respected and loved women. Now these women who had given up all to follow Him looked on as the man they had grown to love breathed His last. That they were present and witnessing all that transpired will later be significant.

Today we will turn and look at what happened following Jesus death.

예수님의 장사에 관한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주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구세주의 죽음에 수반된 다섯 가지 극적인 **□□□□□□□□□□**. 마가는 첫 번째 극적인 사건이 땅에 내려온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정오 12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땅을 덮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평범한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식이 가능한 때가 아니라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주의 일상적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자 유지자로서 그분의 신성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선택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여기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어둠을 선지자 아모스의 말과 연관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정오에 해가 지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아모스 8:9). 또한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일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아홉 번째 재앙은 사흘 동안의 암흑이었습니다. 그에 이어 열 번째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켜간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에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어둠의 기간(3 시간)에 이어 장자의 죽음과 “어린양”의 파흘림이 뒤따르는데, 이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유월절을 뜻합니다.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재창조의 사건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둠과 혼돈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 에서

땡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책임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이전에는 디자인이나 질서가 없었습니다(Gen 1).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빛과 디자인을 도입하여 혼돈을 몰아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둠 속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영원히 물리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하나님과 멀어진 데 대한 그분의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를 짊어진 이 순간에 그분은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교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짖으신 것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소외 때문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부르짖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분이 엘리아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아는 메시아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인을 구원하러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말라기 4:5). 그래서 사람들은 여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엘리아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누군가 예수께 신 포도주를 막대기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분의 심각한 신체 상태로 인해 극심한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그분의 사명이 완성되고 주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후 3 시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네 번째 극적인 사건을 봅니다. 성전의 큰 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후장은 지성소를 성전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후장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장의 찢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이 후장의 찢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이 후장의 찢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이 후장의 찢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극적인 사건은 로마 백부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처형대의 리더였습니다. 예수를 포함한 사형수들의 처형을 감독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노련한 베테랑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여러 번 목격하고 집행한 사람.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죽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쳤

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말 뒤에 무엇이 있든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와 큰 슬픔 속에서 지켜보던 여성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쳤습니다. 마가는 이 무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실 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순회 설교자와 선생으로 지내시는 동안 지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진보적인 랍비였습니다. 여성을 기쁘하고 무시하는 문화에서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는 여성을 환영하고, 가르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여인들은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42 Now when evening had come, because it was the Preparation Day,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Jesus is dead His precious body remains nailed and hanging on the cross. Mark tells us that evening had come. The Jews recognized two evenings, “early evening,” which extended from 3pm to 6pm, and “evening,” which meant after 6pm. By the Jewish way of reckoning this was when the new day began.

Mark here refers to the “**Preparation Day**” this was the period of time that stretched from Thursday dusk to Friday dusk. As its name suggests this was the time when Jewish people readied everything for the Sabbath. We must remember that no work could be undertaken on the Sabbath. So food needed to be prepared and cooked, wood chopped for the fire and animals had to be tended. Also included as “work” and as a consequence forbidden on a Sabbath would be preparing a body for a burial.

Therefore if His followers want Jesus is to be accorded a proper burial they will need to work quickly. They must seek permission to take down His body, prepare a shroud and spices, remove His body, wrap it in linen and then put the corpse in the tomb. All of this has to be completed before 6pm (sundown) on the Friday when the Sabbath officially begins.

We know of course that the disciples, John excepted have fled. Only the women followers remain. Who will step up and offer to bury Jesus? Well let's read on and find out.

#### **42 그 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분의 귀중한 몸은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가는 저녁이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는 “이른 저녁”과 오후 6시 이후를 의미하는 “저녁”을 구분했습니다. 유대인의 방식에 따르면 이 때가 새 날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준비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목요일 황혼에 시작하여 금요일 황혼까지 이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해야 했으며, 불을 지피기 위해 잘게 썬 나무와 동물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사지낼 시신을 준비하는 것도 “일”에 포함되며 그 결과 안식일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시신을 내리고, 수의와 향료를 준비하고, 시신을 아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해질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여성 추종자들만 남습니다. 누가 나서서 예수를 장사하겠다고 제안할까요? 그럼 계속 읽어보고 알아봅시다.

#### **43 Joseph of Arimathea, a prominent council member, who was himself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coming and taking courage, went in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Step forward Joseph of Arimathea. This fascinating biblical character is mentioned in all four gospel accounts but only in relation to Jesus burial. This is his first mention in Mark's gospel. While there is not much information in the Bible about Joseph of Arimathea, there are certain things we can glean from the various texts which mention him. Let us deal firstly with his name and town of origin. Joseph was a common name in the first century and there are a number of Joseph's mentioned throughout scripture. Therefore to help avoid confusion Mark includes his town of origin as an identifier.

The Judean town of Arimathea is said to have been located about 20 miles north-west of Jerusalem.

Next we are told that he was a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This means he was a member of the Sanhedrin. This council which contained 71 members was the highest authority in the land. So to be a member made you a very important and notable person. You would be someone looked up to and respected. New members had to be voted in by the council, and if a member died a replacement would be picked from amongst their exclusive ranks. So what I'm trying to impart is that Joseph was a prominent Jew.

We also learn something interesting about his character. He knew that he was a member of the council that had gathered and called for Jesus' death. But, Luke tells us that Joseph was "a good and just man" (Luke 23:50) who disagreed with the Sanhedrin's effort to crucify Jesus (Luke 23:50–51). So we are seeing something of Joseph's character emerge here. He comes across as a strong minded independent thinker. A man who sought after truth. Not a man easily swayed by the weight of peer pressure.

We also learn from Matthew that He was rich (Matthew 27:57). The source of his wealth is unknown but the fact that he owned his own as yet unused tomb suggests he was a wealthy individual.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we learn that he was a follower, actually a "disciple" of Jesus (Matt 27:57). Mark tells us that he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This means he was a devout Jew who had come to faith in Jesus. However John tells us that while Joseph does follow Jesus, he does so secretly in fear that other members of the Sanhedrin will find out (John 19:38).

What you might wonder became of Joseph of Arimathea? The bible never mentions him again following his involvement in the burial of Jesus. Did he join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His fate remains a mystery. Legend has him becoming the first Christian missionary to Britain. Apparently he carried the Holy Grail to Britain and founded Glastonbury Abbey. A nice story, but sadly unlikely to be true. Let's get back to the bible.

Joseph steels himself to go and visit Pilate. Why you might ask did this act take courage. There are two different components that we need to consider. Firstly we must consider his standing in Jewish society. He was a member of the Sanhedrin. They had just declared Jesus to be guilty of blasphemy. To them Jesus was the worst kind of offender; an enemy of God. They would have wanted Jesus' body to have been taken down from the cross and thrown into a common grave. This was the outcome for many victims of crucifixion. So had they known that Joseph accompanied by Nicodemus (John 19:39) had gone to Pilate to ask for Jesus' body there would have been serious ramifications.

Secondly we have to consider his request to the Roman authorities. To the Romans Jesus was guilty of high treason. He claimed to be king and had tried to usurp the authority of Caesar (Mark 15:26). For such an offence it was usual to leave the body hanging on the cross. The corpse would be left to rot and be picked at by birds of prey. It was intended as an additional layer of humiliation and to serve as a warning to others. Eventually the body would be taken down and thrown into a garbage pit. However if the family requested the body it was fairly common that the authorities would hand it over for a proper burial. Joseph was not a family member. So he cannot know how Pilate will take his request. He might have faced animosity or even scorn. So courage was required. Let us continue



**44 Pilate marveled that He was already dead; an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if He had been dead for some time. 45 So when he found out from the centurion, he granted the body to Joseph.**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Jesus had already died. This was because crucifixion was designed to be a long slow agonising death. Today in places where capital punishment is carried out the process is quick. Authorities want to despatch convicted criminals in the most efficient and humane way possible. In the US for example the most commonly used form of execution is the lethal injection. 28 US states authorise this method of execution. Killing convicted criminals in this way is relatively quick. In most cases death can be confirmed within 10 minutes of administering the first of three separate injections.

Making the death quick was not a concern to the Romans. In fact they had purposefully designed crucifixion to be the exact opposite. They wanted the victim to die slowly in great pain. Today the thought of this unnecessary cruelty horrifies us, but let us consider the Roman's motivations. They were attempting to hold together a vast and diverse empire. It's true that they possessed large, well trained and well equipped armies. But in truth they were always vastly outnumbered by those they ruled over. The peace of the empire was a fragile thing. So a strong legal system backed up by harsh punishment was one effective means of maintaining order.

We see the opposite working today particularly in Western Europe. When laws and punishments are weak it serves to embolden bad behaviour. If you gauge the odds of being caught to be low and then combine this with a weak judicial system what's the deterrent to committing crime? Let me give you a shocking example. Between October 22<sup>nd</sup> 2022 and September 22<sup>nd</sup> 2023, 67,938 rapes were reported to the UK authorities. Of these rapes only 2.4% or a little over 1600 resulted in the rapist being caught and charged by the police (Source Rape Crisis England and Wales). So UK rapists, or potential rapists have close to a 98% change of being able to get away with rape. That's far from being a massive deterrent!

So the Romans were harsh because they knew it worked. You would certainly think twice about becoming a thief if you knew being caught meant crucifixion.

So Jesus death which took place after 6 hours was short by usual crucifixion standards. At times, it took up to 48 hours or longer for a person to die. In some rare cases it might take up to 6 days!

**44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사체를 내어주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는 십자가형이 오랫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형 집행은 그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당국은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처형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처형 형태는 독극물 주사입니다. 미국의 28 개 주에서 이러한 처형 방법을 승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망은 세 번의 개별 주사 중 첫 번째 주사 후 10 분 이내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빠른 죽음은 로마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십자가형을 정반대로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큰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불필요한 잔인함은 우리를 소름끼치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인의 동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다양한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규모가 크고 잘 훈련되고, 장비가 잘 갖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습니다. 제국의 평화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가혹한 처벌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법적 시스템은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특히 서유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법과 처벌이 약하면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대담해집니다. 잡힐 확률이 낮고 동시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 시스템이 취약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충격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2022 년 10 월 22 일부터 2023 년 9 월 22 일 사이에 영국 당국에 67,938 건의 강간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강간 중 단지 2.4%, 즉 1600 건이 조금 넘는 사건에서 강간범이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출처 강간 위기 잉글랜드 및 웨일스). 따라서 영국의 강간법 또는 잠재적인 강간법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98%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엄한 처벌의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가혹했습니다. 잡히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안다면 도둑이 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6 시간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십자가 처형의 기준으로 짧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최대 48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최대 6 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As an interesting aside the Jehovah's Witnesses claim that Jesus was crucified on a torture stake and not a cross. They claim it was a single stake with no crossbeam and so His hands were lifted above His head and nailed to the stake.

The bible is not clear on the exact shape of Jesus "cross" however, there is very good medical evidence that strongly works against it being a torture stake. In an article on crucifixion in the Guardian newspaper entitled "How crucifixion kills" physiologist Jeremy Ward, noted that the torture stake form of crucifixion was the most severe. This is due to the extreme difficulty of breathing in this position. Death would occur in less than 30 minutes. And yet we know that Jesus survived on the cross for 6 hours. So for this reason alone we can dismiss the torture stake theory.

흥미로운 점은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가 십자가가 아니라 형주에 못 박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로빔이 없는 단일 기둥이었고 그분의 손이 머리 위로 들려 기둥에 못 박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모양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이 단일 기둥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매우 좋은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 □ □ □ □ □ □ □ □ Guardian 신문에 실린 "십자가형이 어떻게 죽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단일 기둥 형태의 십자가형이 가장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자세에서 호흡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30 분 이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 시간 동안 생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유만으로도 우리는 형주 이론을 일축할 수 있습니다.

We do know from the gospel record that the two robbers crucified alongside Him were not yet dead. The Roman soldiers were forced to break their legs in order to hasten their demise (John 19:32). In order to breathe on the cross it required you to push yourself up using your legs. With broken legs you could not do this and hence died quickly. Jesus had been discovered to already be dead. This was verified when a soldier stabbed Him in the side with his spear (John 19:34).

Pilate summoned the centurion and finds out that Jesus had indeed died. Its noteworthy that Pilate investigated things for himself. He didn't simply take the news about Jesus death at face value. It's a good reminder to us that we need to investigate any claims made to us. The centurion who had spent his professional career as a soldier surrounded by death confirmed that Jesus had been dead for some time. Pilate then agreed to give the body to Joseph.

It was unusual to give the corpse of a person condemned for treason to anyone but a family member. We are left then to wonder whether Pilate felt some guilt about what had happened to Jesus. Did he hand over the body to Joseph because he felt shame? Let us continue and see what Joseph does with the body.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요한복음 19:32).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려면 다리를 사용하여 몸을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빨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확인되었습니다(요한복음 19:34).



발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라도가 직접 조사한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제기된 모든 주장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죽음에 익숙한 직업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꽤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발라도는 사체를 요셉에게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체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라도가 예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수치감 때문에 사체를 요셉에게 넘겨준 걸까요? 계속해서 요셉이 사체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6 Then he bought fine linen, took Him down, and wrapped Him in the linen. And he laid Him in a tomb which had been hewn out of the rock, and rolled a stone against the door of the tomb.**

Every culture has its own rituals or ways of handling bodies and preparing them for either burial or cremation. For the Jews it was a quick process, this was especially true in Jesus case because it had to be done before the Sabbath began. So the Lord Jesus is taken down from the cross and Nicodemus and Joseph perhaps assisted by their servants go through the burial rituals.

Normally the first step would have been the ritual of washing the body. This is not mentioned as happening here,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they had to work quickly. There is also no anointing of the body mentioned here by Mark or in the other synoptic gospels. The omission of these important steps provides the motivation for the women's return to the tomb on Sunday morning

The next step would have been to wrap the body in long sheets of linen. This is duly done for Jesus. It was as you were doing this that it was the custom to place herbs or spices between the layers. As I just mentioned the synoptics do not include this detail occurring, John however tells us they used 75 pounds (35 kg) of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John 19:39-40). This is a vast quantity of this expensive substance. It is way more than would normally have been used. Does John want us to understand that when it comes to Christ we are not to hold anything back? This may be true but I'm more inclined to think the quantity is reflective of the majesty of the person being buried. This was the quantity that would be used for a royal personage. A king was being buried and therefore a kingly quantity of herbs and spices would be used. The final thing to be done was to place a face cloth or covering over the face.

The next thing they did was carry Jesus' wrapped body to the tomb site. Today if we bury bodies in cemeteries we must dig down into the earth. We prepare a horizontal hole in which to lay the body flat. This was not the way they did things in Palestine. Only very poor people were buried in the ground. They would be placed in vertical shafts dug into specially designated fields. Most people however placed their dead into holes, caves or vaults dug into the hillsides. Where possible natural caves or holes would be utilised. It's hard work to chip away at stone so far better to use what exists naturally. If natural caves were not available then spaces would be hewn from the rock. These were known as *kokhim* meaning "niche" in Hebrew. The most basic *kokhim* resembled simple shelves carved into the rock on which bodies could be lain.

If a family was wealthy they may elect to make a more elaborate tomb. At times these tombs contained several rooms in which multiple family members could be lain. The bodies would remain in this state for about a year. After this time had elapsed family members would return to the tomb and collect the bones and place them in a box called an ossuary. This would be labelled with the person's name and stored at the back of the tomb.

**46 요셉은 예수님의 사체를 내린 후 준비한 고운 모시 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 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입을 막았다**

모든 문화에는 시신을 처리하고 매장 또는 화장을 준비하는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빨리 처리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특히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치고 니고데모와 요셉은 아마도 그들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 의식을 치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씻는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해졌다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빨리 움직여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이나 다른 공관 복음서에 몸에 기름 부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계의 생략은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으로 돌아가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는 긴 리넨 시트로 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합당하게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옷감 층 사이에 허브나 향신료를 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그들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혼합물 75 파운드(35kg)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요한복음 19:39-40). 이것은 값비싼 것인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걸까요?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들의 양이 묻힌 사람의 위엄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왕족에게 사용되는 양이었습니다. 왕의 장례이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한 허브와 향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천으로 얼굴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묘지에 시체를 묻으려면 땅을 파야 합니다. 몸체를 반듯하게 놓을 수 있는 평평한 구덩이를 준비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지정된 들판에 파낸 수직 통로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덕에 파인 구덩이, 동굴 또는 둥근 천장에 시체를 두었습니다. 가능한 경우 자연적인 동굴이 활용됩니다. 돌을 깎아내는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천연 동굴을 이용할 수 없다면 바위를 깎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틈새"를 의미하는 코킴(kokhim)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킴은 시체를 눕힐 수 있도록 바위를 깎아서 만든 선반 같은 것입니다.

부유한 가족은 더 정교한 무덤을 만듭니다. 때때로 이런 무덤에는 여러 가족을 눕힐 수 있도록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체는 약 1 년 동안 이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족들은 무덤으로 돌아가 뼈를 모아 납골당이라는 □□□□□□□□.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라벨을 붙여 무덤 두쪽에 보관했습니다.

Jesus was placed in a tomb that had been cut out of the rock. Matthew tells us that this was Joseph's own tomb that he (more likely his servants) had cut out of the rock (Matt 27:50). We don't know exactly what Jesus' burial tomb looked like. But we do have surviving tombs of the period that can guide us. The entrance into the tomb was usually no higher than three feet. Inside there may be a ledge or ledges cut into the rock or a stone table on which to lay the body. The entrance would be sealed or closed by rolling across a large circular shaped stone. If the tombs owner was particularly wealthy a groove may have been chiselled into the rock to make rolling the stone easier. With or without a guiding groove the stone would have been heavy and may have required two or more men to roll it into place,

Jesus then has been prepared and placed in His tomb. All this had been done before the Sabbath had begun. Just a word here about the sacrifice made by Joseph and Nicodemus. In entering into Pilate, a Gentile's presence they had made themselves ceremonially unclean. This was further compounded when they handled a dead body.

All of this meant that they would b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Passover feast. It's difficult for us to imagine today what this meant to the Jews. To be unable to enjoy this collective gathering and celebration would have been devastating to these two prominent Jewish men. But they were willing to forsake their own needs in order to ensure that Jesus received a proper burial.

Let us conclude today's study by looking at verse 47.

예수님은 바위를 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태는 요셉 아마도 그의 종들일 가능성이 높음)이 바위를 파서 만든 그의 무덤이었다고 말합니다(마 27:50).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무덤의 형태를 보여주는 무덤이 현존합니다. 무덤 입구는 대개 3 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선반이나 시신을 눕힐 수 있는 돌 테이블이 있습니다. 입구는 큰 원형 모양의 돌을 굴러 닫습니다. 무덤 주인이 특히 부유했다면 돌을 쉽게 굴릴 수 있도록 홈을 파았습니다. 하지만 홈이 있든 없든 돌은 무거웠을 것이고 그것을 제자

리로 굴리려면 두 명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준비되었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러야했던 희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야방인인 발라도에게 감으로써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다룸으로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집단적인 모임과 절기를 기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두 명의 저명한 유대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합당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신들의 필요를 가려서 포기했습니다. 47 절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47 And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s observed where He was laid.**

At first glance we might think it odd that Mark includes this rather trivial detail. Why tell us that two of the women who were at the cross saw where He was buried? Its importance lies in providing valuable evidence against spurious claims regarding the resurrection. One of the less convincing claims made about the resurrection, or more accurately the empty tomb was that the women simply went to the wrong place. This was why it was empty. No miracle had taken place. This argument is without merit when we know that the two Mary's witnessed first-hand where Jesus body was laid. They observed and carefully remembered its location. They did this for a very good reason. They intended to return.

It is now the Sabbath a day on which no work may be undertaken. The women will return early on Sunday morning in order to anoint Jesus's body. What happens next Lord willing will be the subject of our next sermon.

#### **47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 둔 곳을 지켜 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마가가 이런 사소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던 두 여자가 예수님이 묻힌 곳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에 관한 거짓 주장에 맞서는 귀중한 증거를 제공하므로 중요합니다. 부활 더 정확하게는 빈 무덤에 관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 중 하나는 여자들이 단순히 잘못된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무덤이 비어있는거야!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두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이 가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덤 위치를 관찰하고 주의 깊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 □ □ □ □ □ □ □

지금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입니다. 여자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돌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것입니다. 다음 설교에서 그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1 Being bold for Christ**

In our account today we read about the courage or boldness of Joseph of Arimathea. He had to go and ask for a favour from a man who wielded great power, and at times was little more than a tyrant. Pilate might have laughed in his face or openly mocked him, "What is this man to you? Why are you wasting my time?" Pilate might even have reported his request to another member of the

Sanhedrin. That really would have made life difficult for Joseph. They would I'm sure have asked him some tough questions. None of these considerations seemed to deter Joseph. He boldly went ahead and did what was right.

What about us? How bold are we for Christ? Our boldness might manifest itself in a variety of ways. It might show itself in the boldness we exhibit in sharing our faith. Being bold in this area means courageously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Are you bold in this area?

It might show itself in boldly standing on God's truth and resisting any compromise. Are you rock solid in what you believe and stand against what the culture today promotes? Or are you like a reed bending in whichever direction the wind blows? I hope you are the former.

It might show itself in simply having the courage to profess to others that you are a follower of Christ. That you really love Him and seek to obey what He has told you to do. Perhaps to some of you listening that doesn't sound like being very bold. But to others, telling friends, co-workers or family members you are a Christian requires courage. Being courageous is not a jacket that comes in one single size. For each of us courage or boldness varies. But all of us need it in one size or another.

How sad it is today that the church in general, and many professing Christians are wishy-washy or half-hearted in their commitment. How ineffective most of us are due in part to our lack of boldness. The times are becoming more urgent. Now is the time for action and engagement. It is not the time for us to be fearful and cowardly.

Boldness is a gift from God. We need to seek Him through prayer and devotion and ask Him to bless us with conviction, commitment and urgency. May we desire to be bold for Christ in this dark and dying world.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와 담대함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큰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폭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비웃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왜 내 시간을 낭비하느냐?” 빌라도가 그의 요청을 산헤드린의 다른 의원에게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요셉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요셉을 단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누면서 나타내는 담대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 담대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어떤 타협에도 저항하는 담대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의 문화가 조장하는 것에 대항하여 당신이 믿는 것을 확고하게 지킵니까? 아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휘어지는 갈대와 같습니까? 저는 당신이 이 전자기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단순히 당신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용기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매우 대담한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친구나 동료, 가족에게 알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담대함에 있어 똑같지 않습니다. 용기나 담대함은 우리 각자에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전체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에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부분적으로는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능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동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비겁할 때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그분을 찾아야 하며, 확신과 헌신, 간박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 **2 The importance of attention**



미디어, 음악, 가족 문제, 정치, 재정적 문제는 모두 우리가 산만해지고 주의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찬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딴 데로 흩어졌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당신께 고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게 도와주세요.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실한 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